

腎病變을 同伴한 렘토스피라病的 臨床的 觀察

서울醫大 內科

李正相 · 尹成澈 · 安奎星 · 金聖禧

病理科

金 勇 一

렘토스피라病은 全身 臟器를 侵犯하는 急性 傳染性 疾患으로 多樣的 臨床症勢를 보인다. 렘토스피라에 의한 腎病變은 렘토스피라의 直接的인 腎毒性和 感染에 의한 非特異的 機轉에 의해 誘發되는데, 臨床적으로 無症狀에서 腎不全에 이르기까지 여러 症勢를 보이고, 他臟器의 侵犯에 따라 多樣的 症狀을 나타낸다.

演者들은 急性 傳染性 全身性疾患 中에서 原因이 없으면서 WHO 렘토스피라病 指針의 診斷基準中 26點以

上이 되는 患者 25名 중 서울大學校病院 14名 원주도립 병원 6名, 軍病院 3名, 忠南大學病院 2名을 對象으로 腎病變에 對한 몇가지 所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1) 對象患者 25名中 初期 發現症狀이 腎機能 障礙에 의한 症狀을 보인 경우는 1例에 불과하였다. 經過中 腎機能 및 尿檢査에 異常이 없었던 경우는 11名(44%)이었고, 尿檢査에서만 異常을 보인 경우는 6名(24%)이었으며, creatinine 이 1.5mg/dl 以上으로 상승한 경우는 8名(32%)였고, 여기에 黃疸이 同伴된 경우는 4名(16%)이었다. 위 患者의 檢査所見은 表1과 같았다.

2) 腎病變을 보인 患者中 醫生檢査를 실시한 例에서는 光學顯微鏡 所見上 間質에 浮腫과 炎症細胞의 浸潤을 同伴한 急性 細尿管 間質性腎炎과 急性 細尿管壞死의 所見을 보였고 免疫螢光檢査上 IgM과 C₃가 각각 1例에서 沈着되어 있었다.

Laboratory Findings in Leptospirosis, especially Renal Involvement.

Laboratory findings	%	Laboratory findings	%
Hemogram		Chemistry	
Hb 12.0g/dl	46.2	A/G reverse	69.2
WBC 10,000/mm ³	38.5	SGOT > 25 IU/L	69.2
Plt. 150 × 10 ³ /mm ³	69.2	SGPT > 29 IU/L	46.2
Bleeding profile		A. Potase > 115 IU/L	66.7
PT 13 sec	38.5	Bilirubin(T) > 1.2 mg/dl	30.8
PTT 38 sec	53.8	Uric a. > 7 mg/dl	61.5
FDP(+)	80	Calcium < 8.8 mg/dl	100
Fibrinogen 170 mg/dl	33.3	Cholesterol < 120 mg/dl	41.7
Renal function		CPK > 120 IU/L	57.1
Creatinine 1.5 mg/dl	32.0	LDH > 225 IU/L	100
Urine protein(+)	46.2		

사구체신염에서 Levamisole 의 면역개선 효과

경희의대

우정택 · 손영진 · 박상훈

입천규 · 김명재

구충제로 알려진 Levamisole 이 phagocytosis 와 chemotaxis 를 향상시키고 면역복합체의 제거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밝혀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 특이성 신증후군 환자들의 치료제로 사용된 보고가 있는 후로

사구체 신염에서 새로운 치료약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저자들은 IgA 신증을 비롯한 사구체 신염환자들을 대상으로, Levamisole 을 투여한 후 면역개선 효과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환자는 8명으로서 IgA 신증환자가 5명, FSGS, MPGN, Lupus Nephritis 환자가 각각 1명이었다.

2) T입파구는 Levamisole 투여전과 투여후 각각 60.8 ± 7.0%, 56.9 ± 8.9%로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3) Suppressor T-cell(TG)은 투여전과 투여후 각각 5.6 ± 2.8%, 4.3 ± 1.4%였고, Helper T-cell(TM)

도 각각 $20.1 \pm 18.2\%$, $24.5 \pm 16.6\%$ 로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4) 자연살해 세포능도 역시 투여전 $35.6 \pm 52.1\%$ 투여후 $37.2 \pm 48.1\%$ 로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5) Lymphocyte transformation test에서도 투여전 $140.3 \pm 35.3 (\times 10^3 \text{ CPM})$, 투여후 $151 \pm 39.0 (\times 10^4 \text{ CPM})$ 으로 역시 의의있는 차이는 없었다.

6) 그러나 EAC와 yeast에 대한 Neutrophil의 phagocytic activity는 EAC에 대해 투여전 $84.2 \pm 4.7\%$ 에서 투여후 $87.9 \pm 5.1\%$ 로, yeast에 대해 투여전 $56.6 \pm 10.5\%$ 에서 투여후 $68.9 \pm 9.2\%$ 로 각각 투여전에 비해 투여후에 의의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P < 0.05$).

따라서 Levamisole은 사구체신염에서 면역복합체의 혈중 제거를 돕는 약제로 생각되며 앞으로 병리조직학적 검사로 이 약제의 효과를 판정해 보아야 할 것이다.

— 23 —

25%이상의 사구체에서 반월상(crescents)이 동반된 소아 사구체신염의 임상 병리학적 고찰

서울의대 소아과

이환홍 · 고광욱

저자들은 1979년 1월부터 1984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여 신생검을 받은 환자중, 조직검사상 관찰된 사구체의 25%이상에서 반월상이 동반된 여러가지 신질환환아 17례의 임상, 병리학적 조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소견을 얻었다.

1) 25%이상의 사구체에서 반월상이 동반된 신질환환아 17례 중, Henoch-Schönlein nephritis(H-S nephritis) 환아 10례, 미만성 증식성 사구체신염에 의한 신증후군환아 2례, 막-중식성 사구체신염에 의한 신증후군환아 1례, 세균성 심내막염에 동반된 미만성 증식성사구체신염환아 1례, 연쇄상구균감염후의 반월상사구체신염으로 판단되는 환아 2례 및 전신질환에 동반된 것으로 판단되거나 확실한 원인을 모르는 환아가 1례이었다.

2) 발병연령은 9년 내지 14년 10개월(평균 12.26 ± 1.80 년), 남아 8례, 여아 9례이었다.

3) 병력 및 이학적 검사상 6례에서 발병전에 상기도 감염같은 증상, 1례에서는 수두가 있었으며, 전례에서 혈뇨(14례에서는 육안적, 3례에서는 현미경적 혈뇨),

15례에서 부종, 6례에서 고혈압이 있었다.

4) 입원시 결사상 17례 중 14례에서 혈청알부민 2.5 gm/dl 이하 및 단백뇨 40 mg/hr/m^2 이상으로 임상적으로 신증후군의 경과를 밟았다. 13례에서 혈청 creatinine이 $1.5 \text{ mg}\%$ 이상으로 신기능의 장애를 나타내었으며 그중 3례는 $5 \text{ mg}\%$ 이상이었다. 단백뇨의 선택성지수는 11례 중 10례에서 0.2이상이었다.

5) H-S nephritis(62%, 43%, 83% crescents 동반) 환아 3명에 대하여, dipyridamol, prednisolone 및 cytoxan 등을 단독 또는 2가지이상 병행하여 사용하였으며, 그중 혈청 creatinine의 상승이 있던 2례 모두 creatinine의 정상화가 있었다. 생검시 creatinine이 $3.2 \text{ mg}\%$ 이었던 세균성 심내막염환아(58% crescents 동반)에서는 항생제만으로 치료시작 후 7주째에 creatinine이 정상화되었다. H-S nephritis(89%, 100% crescents 동반)환아 2례, 막-중식성사구체신염환아(75% crescents 동반) 및 연쇄상구균감염후의 신염(100% crescents 동반) 1례 등 모두 4례에 대하여 methylprednisolone "pulse"요법을 시행하였다. 이들 4례에서는 모두 2~4주 후에 혈청 creatinine의 감소($5.4 \pm 2.9 \rightarrow 2.0 \pm 1.5 \text{ mg}\%$), Ccr의 증가($17.6 \pm 11.8 \rightarrow 39.9 \pm 28.5 \text{ ml/min/1.73 m}^2$) 등의 현저한 호전이 있었으나, 각각 1주, 2개월, 4개월 및 25개월 후부터 creatinine이 다시 상승하여 모두 신부전으로 이행하였다. 나머지 9례에 대해서는 특이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6) 생검후 1, 2 및 7개월에 신부전으로 사망한 3례 및 생검후 5~42개월(평균 20.8 ± 10.7 개월)이 지난 13례 등 모두 16례의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었다. H-S nephritis 9례중 4례(78%, 92%, 89%, 90% crescents 동반)가 신부전으로 이행하여 그중 2례는 신장이식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5례(1례는 crescents가 89%, 4례는 75%이하 동반)는 혈청 creatinine의 상승 또는 부종, 육안적 혈뇨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단백뇨만 보이고 있다. H-S nephritis 이외의 환아 7례중 2례는 신부전으로 이행하였으며, 1례는 추적관찰된 18개월동안 계속 경한 신기능장애를, 4례는 단백뇨만 보이고 있다.

7) 신부전으로 이행한 6례에서 증상의 첫 발현부터 혈청 creatinine이 $5 \text{ mg}\%$ 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2~37개월(평균 13 ± 11.6 개월)이었다.

8) 반월상 동반비율 25~50%군 4례중 2례(50%), 50~75%군 5례중 3례(60%), 및 75%이상군 8례 모두(100%)에서, 생검시 혈청 creatinine이 $1.5 \text{ mg}\%$ 이상이었으며, 특히 $5 \text{ mg}\%$ 이상인 3례는 모두 75%이